

# 돈점론 적용한 유교와 불교 사상 '회통'

## 불교로 읽는 古典

### 왕용계의 <사무설(四無說)>



박길수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왕기(王畿, 1498~1583)는 명대(明代) 중기의 저명한 학자로 자(字)는 여중(汝中)이고, 호(號)는 용계(龍溪)이다. 그는 젊은 나이에 진사 시험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이후 관직 생활은 채 2년이 안되며 나머지 40여 년의 생애를 오직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힘을 쏟다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이후 명대의 문인인 장여림(張汝霖)이 왕기의 행적과 저작들을 교감하고 1615년에 <용계왕선생전집龍溪王先生全集>을 간행하였고, 2007년에는 중국의 봉황출판사(鳳凰出版社)가 표점본 <왕기집王畿集>을 출판하여 학계에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였다.

일반적으로 왕기에 대한 기존의 학계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둘로 나뉜다. 하나는 그의 사상은 전형적인 원불입유(援佛入儒), 곧 불교 사상을 차용하여 유학을 새롭게 구성한 사상이므로 소정환 유학 사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견해들로 명대의 양명학자 가운데 오직 왕기만이 양명학의 정맥(精脈)과 학리(學理)를 계승하여 이를 사상적으로 보다 완성하게 발전시켰다는 평가이다. 필자는 이러한 상반된 평가 가운데 후자의 평가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 문제는 왕기의 사상이 이처럼 상반된 평가들을 받게 된 배경에는 그가 제시한 유불도(儒佛道) 회통 사상과 사무설(四無說)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불도 회통은 왕기 사상의 원만성과 원유무애한 철학 정신을 잘 보여주며, 또한 사무설은 그의 고원한 철학적 자각과 실천을 여실히 시사해준다. 주지하는 것처럼, 사무설의 연원은 그의 스승인 왕양명(王陽明, 1472~1529)의 사구교(四句教)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명은 일찍이 천천교(天泉橋)에서 최후의 정론을 다음과 같이 설파한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체이다.

(無善無惡之心之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이 의념의 일어남이다.

(有善有惡之意之動)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이 양지이다.

(知善知惡是良知)

선을 행하고 악을 없애는 것이 격물이다.

(爲善去惡是格物)

또한 양명은 두 가지 교법을 소개하면서 상근(上根)의 사람은 무선무악의 심체를 곧바로 깨달을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심체를 곧바로 깨달을 수 없으므로 우선유악의 단계로부터 출발하여 점진적인 공부로 통해 심체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양

자를 결합 것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교법(教法)을 흔히 돈교(頓教)와 점교(漸教)라고 한다. 돈교는 곧 돈오(頓悟)에 기초한 계도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최고의 자질을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본체를 곧바로 자각하게 하는 수양법을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점교는 곧 점수(漸修)에 근거한 수양법으로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점진적인 공부를 통해서 점차 마음의 본체를 체인해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를 본체와 공부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면, 결국 돈교는 본체에 대한 자각 위에서 공부를 견지하는 것이고, 점교는 공부의 견지 위에서 본체를 자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왕기는 사물설을 제시하고, 교법과 관련하여서는 돈교의 입장을 견지한다.

본체의 은미함과 작용의 드러남은 다만 동일한 기틀일 따름이고, 심(心)·의(意)·지(知)·물(物)은 다만 한 가지의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심이 무선무악의 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의는 곧 무선무악의 의이고, 지는 곧 무선무악의 지이며, 물은 곧 무선무악의 물이다. (<용계왕선생전집> 1권, '천천중도기')

왕기는 수미미한 엄격한 학리(學理)에 근거해 스승이 제시한 사구교의 궁극적 종지는 필연적으로 사무설이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사구교의 첫 번째 구절에서 심의 본질과 특징을 무선무악으로 규정할 이상 심의 기타 속성과 활동 역시 이러한 무선무악의 본질을 구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또한 본체의 시각에서 본심·의·지·물을 각기 무심지심(無心之心), 무의지(無意之意), 무지지지(無知之知), 무물지물(無物之物)로 정의한다.(<용계왕선생전집> 1권, '천천중도기') 그러면 심의 본래면목으로서 무선무악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마음에는 본래 악이 없기 때문에 의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비록 선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을 얻을 길이 없으니 이것을 지선(至善)이라고 한다. 의념이 일어나는 순간 곧 망념이니 비록 선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심을 떠난 것이니 이것을 의습(義襲), 곧 인위적으로 지어낸 선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참과 거짓이 구별된다. (<용계왕선생전집> 5권, '자오정사회어')

왕기가 말한 무선무악이란 근본적인 제약성을 지닌 사고에 기초한 상대적이고 경험적인 선악 개념을 초월했을 때 비로소 체증되는 것이며, 이때 현현하는 본심은 선악을 모두 여의었으므로 진정한 지선(至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본심이며 이에 도달하려면 무엇보다도 '불기의(不起意, 의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왕기는 의념에서부터 발생하는 정립되는 선악의 가치는 철저히 부정하지만, 이러한 상대적인 선악을 초월하여 마음의 본체에서 구현되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선의 실재성은 긍정한다. 이것은 마치 불교가 삼라만상의 실제적 자성(自性)은 부정하면서도 궁극적 본성으로서 불성(佛性)은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왕기가 심의 본질과 관련하여 이처럼 독특한 본체론(Ontology)을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불교의 본체와 공부에 대한 그



왕기의 모습을 그린 중국대사전속 삽화. 왕기는 불교수행에 근거한 견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유불도 회통론을 제시했다.

### 돈점 논리 바탕한 양명학의 적자

#### 무심지심, 무선무악 등 제시

#### '본체가 곧 공부' 라는 공부론 펴내

#### 유교와 불교 회통... 두 사상 결합

의 철저한 체험과 자각이 전제되어 있다. 먼저, 왕기는 유학의 종지로 '깨달음(覺)'을 제시하고 그 대상이 '공(空)'임을 강조한다. 곧 최상의 깨달음은 곧 무를 자각하는 것이다.

현전하는 본체는 마치 공중을 나는 새의 흔적이나 물에 비친 달의 그림자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가라앉은 듯 떠있는 듯 하며, 그것에 대해 논의하자마자 곧 어그러지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어느덧 등 뒤에 있어 신묘한 기틀로 묘하게 응한다. 그 본체는 본래 공하니 어디로부터 그것을 인식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 깨달아야 비로소 형상이 없는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다. (왕중회, <명유학안> 12권, '절중양문학안')

다시 말하면, 늘 시사각각 현현하는 마음의 본체는 사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신묘한 기틀과 작용을 구현하는 무형상의 공(空)으로서 언제나 상대적인 유무(有無)의 경계를 넘어선다. 따라서 이러한 본체를 자각하는 데에는 특정한 방법이 없으며 오히려 본체의 이러한 본질과 특징이 언제나 현현한다는 실존적 상태를 자각할 때에만 비로소 마음의 본체를 명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왕기는 이러한 본체를 자각하는 공부법으로 돈점(頓漸)을 제시하고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본체를 깨닫는 방법에는 돈오도 있고 점오도 있으며,

## 儒 佛



공부에는 돈수도 있고 점수도 있다. 모든 실마리를 한꺼번에 잡아 일거에 끊어 버리는 방식은 돈오·돈수의 방법이다. 씩이 자라서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방식은 점오·점수의 방법이다. 때로는 깨달음 가운데 공부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도 하며, 때로는 급진 가운데 점진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점진 가운데 급진이 있기도 한다. 이것은 근기에 총명하고 우둔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만, 그 결실에 이르러서는 동일하다. (<용계왕선생전집> 2권, '유도회기')

여기서 왕기는 불교의 본체론과 수양론에 대한 깊은 체험을 토대로 돈점(頓漸)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공부에만 돈점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체의 자각 활동에도 돈점의 구별이 있으며, 또한 본체와 공부는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내합(內含)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타고난 근기의 차이에 따라 본체와 공부 수준에 돈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모든 공부는 그 자체로 본체의 주재 활동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본체의 자각이라는 차원에서는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견해들은 왕기가 유학과 불교의 본체론과 공부론에 대한 철저한 체험과 양자의 종합을 통해 '본체가 곧 공부'이고, '공부가 곧 본체'라는 보다 원만하고 고원한 학문 경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처럼 본체와 공부가 완전히 융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공부가 곧 '공부가 없는 가운

데 드러나는 참된 공부(無工夫中真工夫)인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일찍이 성학(聖學)의 최고 이념과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도 없고 불선도 없는 것을 지극한 선이라고 하며, 일정한 법도도 없고 일정하지 않은 법도도 없는 것을 참된 법도라고 하며, 미혹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것을 철저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 유학의 불이(不二)의 근본 종지이니 하늘이 내려 주신 성인의 최상의 학문이다. (<용계왕선생전집> 17권, '불이제설')

위의 글에서 우리는 왕기의 사유 방식과 사상 체계가 근본적으로 유학의 불교 사상의 창조적 결합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의 불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의식과 관심이 유학과 불교에 대한 단순한 교판(敎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 사상이 지닌 고원한 가치와 장점을 창조적으로 회통하려는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보다도 실존적 인간의 본질과 특징을 보다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수양 체계를 건립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볼 때, 왕기와 관련된 전통적인 이단 논쟁은 피상적이며 심지어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새롭게 창조한 사상이 고금의 현실에서 얼마나 여전히 적실한지를 깊이 살펴보는 작업일 것이다.

###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 무료 배송

## ☆ 칠성상회

02-879-2007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 복사, 프린트 모두기능  
판매가: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이부기, 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판매가: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인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액(30팩)  
한달분(80ml/60팩)  
판매가: 115,000원



달리 있어도 함께이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크조 완판  
(직접 납품시간에 배송가능)  
판매가: 100,000원



5차 재입고매번 인기 상품  
을 겨울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키페트 매트  
판매가: 3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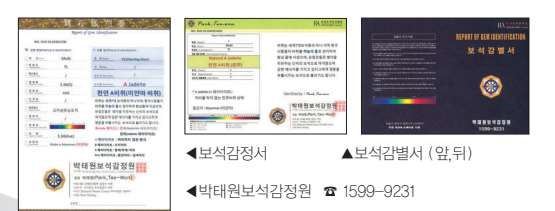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원보석감정원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결정 (무료배송)  
판매가: 35,000원

##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물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절,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향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